

나와  
너를  
잇는  
녹색전환

녹색전환 이야기 모음

## 목차

여는 글 4

### 녹색전환 x 시선

자존심 세워주는 사회를 위하여 / 이상헌 6

경쟁과 성장을 넘어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 사회로 / 이호 8

탈성장 대안 / 히오르고스 칼리스 (번역 : 조안나) 10

### 녹색전환 x 기본소득

기본소득, 본질은 정치적 의지 / 김현 12

기본소득에서 사회배당까지 - 공유자원의 가치 공유  
/ Share the World's Resources (번역 : 조안나) 14

### 녹색전환 x 탈핵

중구난방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존재할까?  
/ 최승우 16

고리 1호기 영구정지(폐료), 반감지만 끝은 아니다 / 최승우 18

전기는 맛이 없다 / 최승우 20

재생가능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  
/ Energy Xchange (번역 : 조안나) 22

### 녹색전환 x 현장 (나라 밖)

격변의 시대에 지역 먹거리 체계가 어떻게 지역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 웬디 슬러서, 로리 마주르 (번역 : 조안나) 24

### 녹색전환 x 생활

냉장고는 '부탁'하지 마세요 / 김현 26

심은 게으름이 아니다 / 이도연 28

### 녹색전환 x 사람들

문화는 총체적 삶의 양식 / 임정희 30

꼭주하는 설국열차의 창밖을 보자 / 주요섭 32

녹색전환은 절박한 문제 / 강대인 34

농사는 예술이다 / 천호균 36

녹색당은 모든 생명의 토양이 되어 절망을 걷어내는 나무수저 정당  
/ 김주은 38

삶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녹색당의 정치  
/ 김영준 40

녹색전환 이야기 글 목록 42

녹색전환연구소와 인사하기 47

녹색전환연구소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48

2013년 7월 10일에 창립된 녹색전환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하는 이 소책자는 녹색전환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녹색전환 뉴스레터에 실린 글들 가운데 조회수가 비교적 높았던 글들을 중심으로 꾸민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로부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고 생각거리를 던진 것으로 보였던 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굳이 책을 만든 것은 이 책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녹색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인류학자 엄기호가 말하듯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열과 위계 없이 각자의 삶을 나누고 공감하며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즉 녹색전환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녹색전환을 위한 말머리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 필자 분들과 디자인을 해주신 한송이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녹색전환연구소장 이상현



## 자존심 세워주는 사회를 위하여

이상헌(녹색전환연구소장, 한신대 교수)

경제주의를 벗어난 사회는 우아한 자존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그런 자존심이 밥 먹여주느냐며 다시 경제주의라는 폭력을 들이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바로 이런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회가 아닐까?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과정에서 무너진 옥원리 할머니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드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Max D. Standley <The Trail of Tears> (1995)

어떻게 체로키들은 이런 자존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비장함이 감도는 송고함과 인내심,  
그리고 햇살보다 더 찬란한 자존심을 어떻게 지니게 되었을까?

아마도 경제주의적 사고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관계망에서 분리된 '개인'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 상품으로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문화를 가꾸어 왔기 때문에  
이토록 강인한 자존심을 모두가 갖게 되지 않았을까?

먹고 사는 문제는 공동체를 건설하게 유지하면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구차해질 필요도 없고, 자연과 우주의 원리에 충실하며  
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경제주의를 벗어난 사회는 우아한 자존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 경쟁과 성장을 넘어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 사회로

이호(플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도되는 공동체 마을은 우선 같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들과 긴밀하게 만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즉,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과 공동체적 내공을 갖춘 시민들이 양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내공을 지속적으로 깊게 하고, 지역사회를 넘어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는 공동체 '운동'을 통해 그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는, 인류 공멸에 대한 위협으로 거론되는 것은 생태환경의 파괴와 빈부격차의 증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 모두 성장에 기반한 경쟁 중심의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초래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인류 공멸의 심각한 위기임을 인식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오히려 '나'의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만들고 심화시킨다. 그러다보니, 세상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 하기보다 점점 더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 중심의 사회발전 패러다임은 성장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 탈성장 대안

히오르고스 칼리스(Giorgos Kallis)

번역 | 조안나(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

탈성장을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거나 자본주의의 폐해를 경감시키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대안적인 사회 생태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견지에서 보면 거대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들이 비용 편익을 계산하거나 성장을 수반하는 대안을 고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세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탈성장”이 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De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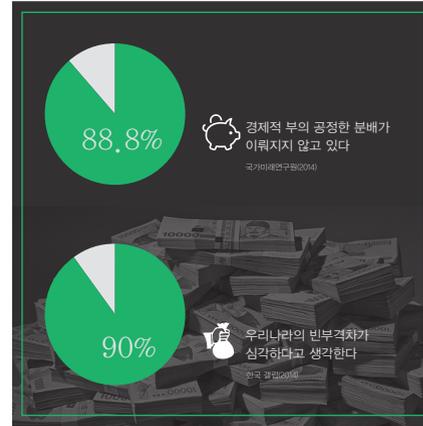
탈성장(Degrowth)의 목적은 환경 보호주의를 다시 정치 이슈화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녹색 성장”은 미래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적대감을 탈정치화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 환경 파괴 없는 경제 성장 등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 기본소득, 본질은 정치적 의지

김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분명한 것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우리나라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은 기본소득을 실시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다. 본질은 재원이나 대중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정치적 의지다. 정글 속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생존의 시대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적어도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 언덕이 존재해야 한다. “취지는 좋으나 가능하겠는가?”라는 자기검열을 통해 기본소득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려야 한다.



# Alaska Fund Dividend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공동소유권 원칙  
알래스카 헌법

주민들에게 석유로부터 나온 수익금을 배당  
1982년 부터 '영구기금배당' 제도 도입 

미국에서 가장 경제 불평등이 작은 주  
미국에서 빈곤율이 최하위 수준인 주



## 기본소득에서 사회배당까지 - 공유자원의 가치 공유

Share the World's Resources(세계의 자원 공유, STWR)

번역 | 조안나(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

시민소득의 궁극적인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고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 빈곤층에게는 기본소득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자원 배분을 토대로 한 시민소득은 세계 인구의 1%인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세계 경제 모델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출처 : Twitter @basicincome

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위에서 ‘탈성장’을 토론하기 때문에 상당한 생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따라 모두를 위한 자원 배분이 생산과 소비의 지속 불가능한 패턴에서 탈피하고 노동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공개 토론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승우(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 좋은예산센터 활동가)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라는 이야기 구조 자체가 소위 ‘원전마피아’ 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과 관련된 현황과 추세를 본다면,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 반증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해버리는 들쭉날쭉한 대한민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보여주고 있다.

「중구난방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존재할까?」  
(2015.5.21) 中



#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과연 존재할까?

## 원전건설 비용 증가

현재 세계적으로 건설중인 원전 59기

최근 5년 내 건설 시작하였으나,  
착공일을 잡지 못해  
완공 불투명  
41기

수십 년 동안 공사 지연  
18기



미국, 와츠 바 원전

1973년 건설 시작, 2012년 전력망 연결 예정 > 2016년으로 연기, 건설비용 지난 5년간 60% 증가

## 기존 원전유지·보수 비용 증가



한국, 고리1호기

1978년 운영시작 > 2007년 7월~2017년 6월 1차 수명연장  
사후처리비용 상승, 이용률 저하, 판매단가 하락

3천 397억원의 손실 발생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의원 / 2015.5.19)

미국, 키와니 원전 > 1974년 운영시작, 2013년 운영 중지 결정

미국, 오이스터 크릭 원전 > 1969년 운영시작, 2019년 운영 중지 결정

최승우(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 좋은예산센터 활동가)

현재 정부는 원전을 안전하게 폐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전 폐로 과정에서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관련 기술의 개발보다 더 중요하며, 안전하게 원전을 폐로시키는 방향일 것이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폐로)는 반갑지만, 우리는 더 많은 해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겠지만, 1만 년쯤은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폐로), 반갑지만 ... 끝은 아니다」  
(2015.6.28) 中



# 원전 폐로 예상 비용 및 절차

## 원전 1기당 해체비용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9861억 원

한국 기준  
6033억 원

2024년까지 34기로 늘어날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 **190조원**

이미지 출처 <http://www.greenpeace.org>

## 원전 폐로 절차

- 1단계 | 영구정지 원전 정지(permanent shutdown)
- 2단계 | 원자로 내 핵연료의 열이 충분히 식도록 기다림
- 3단계 | '즉시해체'와 '지연해체'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즉시해체

상대적 짧은 소요 기간(약 15년), 상대적 낮은 비용  
단점 : 방사선 피폭량이 많음

### 지연해체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활용하고 피폭량은 줄일 수 있음  
60년 정도의 오랜 기간 원전을 관리 필요 > 단점 : 높은 비용



## 국내 원전 폐로 경험

-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와 '트리가 마크 3'를 해체 진행한 경험이 유일
- 사업용 원전 용량의 수백분의 1에 불과한 소형원자로였음에도 폐로에 12~17년 소요
- 국내 원자력학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자체 기술로 폐로를 진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대안조차 마련되지 않음.



최승우(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 좋은예산센터 활동가)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전기요금이 상승할수록 전력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는 가격탄력성이다. 가격탄력성을 활용하여 추정하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이 모두 1% 가격을 상승할 때, 총 판매량절감 효과는 1,151GWh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1년도 총판매량의 0.24%, 서울시 1년 전기사용량의 2.6%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전력 수요의 올바른 합리성은 잘못된 예측에 따른 고질병 같은 과잉 공급이 아니라, 가격 정책을 통한 수요 관리의 방향이 더 큰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기가 남아돌아서, 난리인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발전소 중에서 왜 원자력발전소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전기는 맛이 없다」  
(2015.11.4) 中



## 전기요금 조정 시 판매량 변화

	판매량 (2011년 기준 실적치)	가격탄력성	전기요금 1% 상승 시 판매량절감
주택용	64,774GWh	0.025	16GWh
일반용	102,779GWh	0.074	76GWh
교육용	8,068GWh	0.254	20GWh
산업용	266,598GWh	0.285	760GWh
농사용	12,342GWh	1.926	238GWh
가로등	3,218GWh	0.250	8GWh
심야	17,946GWh	0.180	32GWh
<b>계</b>	<b>475,725GWh</b>	<b>-</b>	<b>1,151GWh</b>

전수연,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p 13.





## 격변의 시대에 지역 먹거리 체계가 어떻게 지역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웬디 슬러서(Wendy Slusser), 로리 마주르(Laurie Mazur)

번역 | 조안나(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

전세계로 뻗어 있는 공급망은 붕괴되기 쉬우며 광범위한 단일재배로 가뭄과 질병에 취약합니다.

지역 먹거리를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더 건강하며 맛있고 지구에 더 좋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좋은 시기에도 위험한 시기에도 지역 먹거리는 우리의 회복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 냉장고는 ‘부탁’ 하지 마세요

김현(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 모심과살림연구소)

나만의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대신 이웃과 나누는 삶. 조그만 상자에서라도 채소를 가꾸고, 음식은 가급적 직접 조리해 먹고, 필요할 때 동네 슈퍼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적은 시간 일해야 하고, 부역 노동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지 않도록 ‘맞살림’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삶의 전환을 냉장고로부터 시작하자 하기엔 거꾸로 그에 앞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 냉장고를 열고, ‘천덕꾸러기’ 식재료를 구출하는 것에서부터 냉장고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작하자. 셰프의 손길이 꼭 필요치 않다. 냉장고는 ‘부탁’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지는 것이다.



365일 24시간,  
한시도 멈추지 않는  
냉장고에서  
**‘전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 쉬는 게으름이 아니다

이도연(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충분히 쉬지 못하는 것은 “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쉬고 있는 것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버리는 시간으로 보며 불편해하는 시각을 많이 접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며, 절대로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서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쉰다는 행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휴식도 권리입니다.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잘 쉬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건강 위협요인입니다.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쉰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 당신은 쉬는 게 필요하다



### 뇌졸중 위험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록  
뇌졸중에 걸리는 비율이 높아짐



###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도 증가



### 번아웃증후군(Burn Out Syndrome)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던 사람이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

### 면역력 감소



면역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하게됨



### 사회적관계단절



휴식도 권리입니다



## 문화는 총체적 삶의 양식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연세대 겸임교수)

문화에서의 녹색전환이라면 삶의 정신성과 물질성 양자를 가르지 않고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에서 흙과 불과 나무를, 그릇 빛는 사람의 노력과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릇을 파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흙이 만들어지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불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자연생태의 이야기를 그릇 빛는 장인들의 기쁨과 고통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릇 파는 장터에서 벌어지는 거래와 재담, 노래와 춤이 불과 흙, 그리고 장인들의 땀과 관계 맺고 있음을 공통의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 즉 지식, 경험, 상상력을 모두 동원하여 개개인의 삶에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구의 역사를 체화하는 문화가 녹색전환의 문화일 것 같아요.



## 폭주하는 설국열차의 창박을 보자

주요섭(한살림연수원 사무처장)

문화에서의 녹색전환이라면 삶의 정신성과 물질성 양자를 가르지 않고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에서 흙과 불과 나무를, 그릇 빛는 사람의 노력과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릇을 파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흙이 만들어지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불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자연생태의 이야기를 그릇 빛는 장인들의 기쁨과 고통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릇 파는 장터에서 벌어지는 거래와 재담, 노래와 춤이 불과 흙, 그리고 장인들의 땀과 관계 맺고 있음을 공통의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 즉 지식, 경험, 상상력을 모두 동원하여 개개인의 삶에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구의 역사를 체화하는 문화가 녹색전환의 문화일 것 같아요.





## 녹색전환은 절박한 문제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녹색전환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죠. 전환은 ‘거듭남’인데, 우리 현실이 특히 21세기형 위기들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전환이라는 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의 의식과 관습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회구조, 정치제도인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전환이란 단어에 담겨있다고 생각하죠. 현실적으로는 녹색전환을 위한 녹색지향의 정치적 구심력이 강화되고 녹색문화적 원심력도 강화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사는 예술이다

천호균(쌈지농부 대장농부)

아름다움이란 새롭고 실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오래된 가치들도 포함하는 거지요.

소비자가 생산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생산도 있지만, 스스로 손으로 만들어내는 '생산'을 해보며 그 고귀함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녹색당은 모든 생명의 토양이 되어  
절망을 걷어내는 나무수저 정당

김주은(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다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서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 지금은 일하고 돈 버느라 다른 생각이나 꿈을 꿀 여유가 없다. 국민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일부러 사회가 몰아가는 것 같다. 노동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고, 이를 대비한 어떤 안전망도 없고, 불안감만 점점 커지는 불건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녹색당이 꿈꾸는 생태적 전환도 이런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가능해진다. 핵이 없는 사회,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사회, 안전한 먹거리, 동물과의 공존, 서로를 혐오하지 않고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삶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녹색당의 정치

김영준(녹색당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인디밴드 하늘소년)

적색과 녹색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한 당원이 답변했다. 사랑과 선거운동 중에 선택해야 할 때,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녹색당이라고.

신촌 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바람이 불자 만개한 벚꽃이 눈처럼 떨어졌다. 그 순간 우리 선거본부 사람들에게 외쳤다.

“모두 선거운동을 멈추시고 벚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녹색이란, 그런 가치를 아는 것이다. 삶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 때 정치도 사회도 나라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 녹색전환 이야기 글 목록

### / 칼럼

적막해지는 꿀벌의 계절  
예수의 시선  
무엇보다 안전!  
심은 게으름이 아니다  
자존심 세워주는 사회를 위하여  
녹색당, 정치권 교체를 하라  
당신의 한 수에 사표는 없다  
기본소득, 본질은 정치적 의지  
개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비례후보 1명이 당선되면 2명이 국회에 들어가는 정당?  
경쟁과 성장을 넘어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 사회로

### / 탈핵브리핑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가서명, 장밋빛 미래인가?  
중구난방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고리 1호기 영구정지(폐로), 반갑지만 ... 끝은 아니다  
핵폐기물 만들지 말라, 이동시키지 말라, 땅에 묻지 말라  
저선량 방사능 노출의 위험, 갈아뭇개서는 안 된다  
원자력발전소에 불이 나면, 불은 누가 끌까?  
전기는 맛이 없다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에너지복지와 주거복지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의 본질은, 물 민영화  
2016년 제20대 총선, 정당들의 탈핵 관련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 / 행사후기

“학교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희망 찾기  
- ‘한국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말하다’ 강연  
기본소득의 재원은 충분하다!  
- ‘기본소득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포럼  
한국 교육개혁의 맥은 탈표준화로부터!  
- ‘세계 교육개혁의 추세와 한국 학교교육의 제4의 길’ 강연  
은행세입자와 월세형인간의 탄생  
- ‘주거권과 기본소득’ 포럼  
너의 빈곤은 나의 빈곤을 이어주는 기본소득  
- ‘빈곤과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 - 학교교육에 방향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 ‘교육과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 때  
- ‘저임금·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 포럼  
청년,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유스개런티를 논하다!  
- ‘2015 청년정책’ 토론회  
4인 4색을 연결하는 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포지엄(1)  
못 살겠다, 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포지엄(2)

## / 지구촌녹색전환

### “베를린에 살다”

- 세입자들의 반란-베를린 시에서 일어나는 주거의 권리를 향한 다양한 저항
- 세입자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투표
- 세입자와 정부의 타협
- 베를린은 다시 세입자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 멈추지 않는 임대료, 베를린 임대료 제동책

### “프랑스 리포트”

- 파리 인근의 몽트레히 지역화폐 ‘복숭아’
- 녹색당 후보로 프랑스 도의원선거에 출마하다
- 보르도 최초의 친환경 주택단지 ‘징코’
- 지역사회에 대안적인 삶을 실현하는 공간, 라르씨클르리
- 프랑스 지역선거, 그리고 장-뱅상 플라세는 왜 녹색당을 탈당했나?
- 프랑스 선거, 당신이 궁금해 하는 10가지 (1)~(3)

## / 번역

영국녹색당 당선자 “캐롤린 루카스” 의원의 두 가지 공약

탈성장 대안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격변의 시대에 지역 먹거리 체계가 어떻게 지역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재생가능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에서 사회배당까지 - 공유자원의 가치 공유

선거 주기 동안의 청(소)년 정치 참여 고양 - 모범 사례 가이드

세계의 희망, 포데모스의 물결

## / 생활 · 삶 이야기

냉장고는 ‘부탁’하지 마세요

작은 ‘집’이 아름다다

쌀이 밥이 되는 시간

어느 채식인의 일주일

드라이브 말고 ‘공유’를 이야기하자

텀블러가 대신 말해주는 것들

알려주는 것, 알고 싶은 것, 알아야 할 것

공기청정기로 만족할 수 없다면

## / 인터뷰

문화는 총체적 삶의 양식 - 임정희

폭주하는 설국열차의 창밖을 보자 - 주요섭

녹색전환은 절박한 문제! - 강대인

하늘소년, 땅을 노래하다 - 김영준

농사는 예술이다 - 천호균

지구와 우리가 서로 기쁘게 연대하는 은행 - 정민

모두의 내일이 불안한 사회에서, 삶의 기반이 되어줄 기본소득 - 백희원

녹색당은 모든 생명의 토양이 되어 절망을 걷어내는 나무수저 정당 - 김주은

평범한 우리들이 부드럽게 세상을 뒤집는 정치 - 홍지숙

삶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녹색당의 정치 - 김영준

- 이야기 글 목록은 홈페이지(ig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녹색전환연구소와 인사하기

지금 우리나라 브레인의 대부분은 '현재 상황의 연장과 확대'라는 전제 위에서 기존 체제의 유지, 기득권층의 이익을 수호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 대기업 산하 연구소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 연구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지향하는 논리, 사상, 신념으로는 지금 인류 사회 전체가 직면한 환경 위기와 자원 고갈, 경제 공황, 민주주의의 위기는 물론이고, 빈부 격차나 고용 문제, 복지 및 교육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2013년 7월 10일에 창립된 녹색전환연구소는 한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읽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데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하게 좋은 자료와 아이디어를 수집, 분석, 정리, 공유하는 정보 자료 센터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활동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넓혀갈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연구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수집·축적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종철 이사장

# 녹색전환연구소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 함께해요, 녹색전환!

녹색전환연구소는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만들어가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내 삶과 가족, 이웃,  
그리고 지구와 생명을  
지키고 함께 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우정과 즐거움의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회원 기본정보

이 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주 소 \_\_\_\_\_  
이 메 일 \_\_\_\_\_  
전화번호 \_\_\_\_\_  
직업/소속 \_\_\_\_\_  
관심분야 \_\_\_\_\_

### 회원 CMS 신청정보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후원금 자동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매월 약정하신 금액을 송금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액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_\_\_\_\_ 원

출금일자  10일  20일  28일

출금계좌  출금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명  본인과 동일  본인과 다름

예금주 생년월일 \_\_\_\_\_

본인은 진청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 기부금은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 ※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는 이메일(mail2igt@hanmail.net)로 보내주십시오.
- ※ 녹색전환연구소 일반후원 | 우리은행 1005-102-449789 (사)녹색전환연구소